



3/4분기 중소기업 및 가계 자금난 심화 우려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3/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완화기조가 악화될 전망이다.

- 2012년 3/4분기 국내은행은 중소기업 중 우량업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완화 기조가 악화될 전망이다.
- 가계 일반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이는 중소기업 및 가계 모두 신용위험이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내 은행들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임.

-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. 이는 내수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민감업종의 수익성 악화, 수출여건 악화로 인한 제조업체의 신용위험도 상승 우려 때문임.
- 가계의 신용위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. 이는 가계부채 증가,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 능력 저하와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대출의 담보력 저하 때문임.

■ 반면,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가계일반자금 대출 수요는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2012년 3/4분기 중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, 수출둔화 등으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창출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대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.
- 가계일반자금 대출수요는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.

(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(2012년 2/4분기 동향 및 3/4분기 전망), 한은, 7/4)